

# 壬辰亂前後의 圖書館史資料

—韓國圖書館史研究抄(十一)—

朴 熙 永

目

## 第一節 機關과 施設

- 1) 校書館
- 2) 校書館文武樓
- 3) 弘文館
- 4) 成均館藏書閣
- 5) 文書庫
- 6) 書 院
- 7) 鄉 校
- 8) 校正廳

次

## 第二節 鑄 字

## 第三節 實 錄

- 1) 春秋館
- 2) 實 錄
- 3) 史 庫

## 第四節 圖書撰修 및 刊行

## 第五節 外國과의 關係

- 1) 明
- 2) 日本

「韓國圖書館史研究」라는 標題로 六回, 「韓國圖書館史研究抄」라는 標題로 四회를 繼續하여 前號까지 十회를 連載하였으나 尙今도 未完이다. 貴重한 誌面을 너무 오래 繼續 占하여 悚懼스럽기 比할수 없다.

本稿는 어데까지나 그間 蒐集한 資料를 一段 간추려 보고져 한것에 不過하며 또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圖書文化를 中心으로한 圖書館의 發展을 살펴보고져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 本稿는 抄에 지나지 못하다.

資料를 간추려 오면서 豫定보다 意外로 量이 많아서 앞으로는 韓國圖書館史研究抄를 副題目으로 해서 繼續할 것이며 資料의 整理가 끝나는 대로 하나의 韓國圖書館史를 꾸릴 것을 附記하여 두겠다.

壬辰亂 前後라고 하였으나 本號에서는 第十四代 宣祖로 부터 光海君, 仁祖에 이르는 三代를 劃하였다.

燕山君時代부터 繼續 이리났던 所謂 四大土禍가 많은 儒學者들을 官界를 떠나 地方으로 내려가서 山林, 田園生活을 하게 하였으나 그래도 벼슬에 野心이 있던 儒者들은 宣祖初에 이르러서는 자리다툼, 權力다툼이 더욱 甚해져서 だ툼을 하기 爲하여 서로 黨派를 形成하여 李朝政治史 上 有名한 所謂 東人, 西人으로 分黨하였으며 이黨爭은 其後 繼續되어 政治上은 勿論 社會의 一大 缺裂을 갖어 오게 하였다. 東人은 다시 南人, 北人으로 갈리어고 西人은 老論 少論으로 갈리어 四色黨爭으로 展開하여 繼續되었다.

黨爭은 每事에 있어서 對立하였다. 宣祖 23年(1590) 日本에 갔던 通信使의 報

告도 東人과 西人이 달랐으며 黨爭과 權力에 依하여 着手하였던 防備조치 中止하게 되어 드디어 宣祖25年(1952) 4月13日 日本軍이 釜山에 上陸하게 되어 壬辰亂이 일어 났으나 宣祖는 無防備狀態에서 日本軍을 맞이 하게 되었다.

前後 6年間の 壬辰亂은 政治, 思想, 經濟, 文化에 크게 影響하였는데 文化面단을 본다면 國寶的인 建築物, 書籍, 美術品等の 文化財가 焚掠으로 因하여 거의 全滅狀態가 되었고 더욱이 歷代實錄을 비롯해서 貴重한 史書等이 秘藏되어 있던 4史庫中 春秋館, 忠州, 星州의 3史庫가 消滅하였고 全州史庫하나만이 僅存하였던 것이다.

壬辰亂後에는 光海君을 廢位케 한 仁祖反正이 있었고 이어서 李适의 亂, 丙子胡亂等の 內亂, 外難이 繼續하였는데 壬辰亂으로 消滅되었던 春秋館史庫를 復舊하였으나 李适의 亂으로 다시금 歷代實錄과 여러書籍이 없어졌다.

이렇듯 이時代는 外難, 內亂에 依한 社會的인 動搖, 黨論으로 因한 政府의 動搖 王位の 繼承問題로 因한 王權의 動搖等 不安과 動搖와 受亂의 時代였다.

## 第一節 機關과 施設

### 1) 校書館

校書館은 第一期로부터 繼續되는 圖書를 印刷 出版하는 官署이다.

校書館은 活字印刷를 主로 하는 官署로서 校書館에서 印出하였다는 圖書는 大概가 活字印刷로 出版한 圖書인 것이다.

이 時機에 있어서도 여러圖書를 印出하였는데 그중 몇몇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宣祖4年(1571) 6月30日 儀禮經傳 續集을 元集의 例에 따라 ① 印刷 頒賜케 하였고 宣祖4年(1571) 11月2日 朱子語類를 印刷케 하였고 宣祖6年(1573)7月3日 書法發明綱目を 進上用13과 國內用 200을 印出케 하였는데 楮紙가 不足해서 國內用綱目은 半減하여 印刷케 된 것이다. 宣祖6年(1573) 12月23日 鄉約의 印刷를 畢하였고 宣祖7年(1574)正月22日 校書館에 命하여 四書五經, 大學或問, 史略2件을 精印하여 懸吐해서 入納케 하였고 宣祖17年(1584)에는 譯官이 明으로 부터 와서 精忠錄一帙을 進하기에 王이 이를 보고 嘉歎하여 校書館에 命하여 印刷케 하였다. 宣祖36年(1603)5月13日 則 壬辰亂後인데 校書館은 周易諺解의 漚滅함을 아껴서 이를 印出頒布할 것을 啓하였고 宣祖36年(1603) 5月15日 壬辰亂으로 消滅한 3史庫의 實錄을 補充하기 爲하여 南別宮에 局을 設置하여 實錄3件을 印出하게 되었는데 乙亥字를 補刻하여 印刷케 하였다. 宣祖40年(1607)4月3日 武經七書를 乙亥字, 庚辰字로서 印出케 하였고 光海君2年(1610) 閏3月22日에는 壬辰亂이 全國坊坊曲曲에 그 被害가 미쳤던 關係로 全國에는 全秩인 書籍이 絶無한 狀態임으로 校書館으로 하여금 左傳의 印刷가 끝나면 龍飛御天歌, 內訓, 書傳, 詩傳, 書傳諺解, 詩傳諺解, 儒先錄等の 圖書를 繼續印刷케 하였다. 仁祖7年(1629)5月14日 海東諸國記라는 圖書를 禮曹 老吏의 집에서 搜出하여 이를 印出케 하였고 仁祖7年(1629)11月19日 小學을 200件 印出하여 內外諸臣에게 頒賜하였다.

① 宣祖實錄 卷5 宣祖4年7月 戊辰條

- ② 宣祖實錄 卷5 宣祖4年11月庚申條
- ③ " 卷7 " 6年 8月癸亥條
- ④ 眉巖日記草 卷8 癸酉12月23日條
- ⑤ 宣祖實錄 卷8 宣祖7年正月戊戌條
- ⑥ 精忠錄 卷首序
- ⑦ 宣祖實錄 卷162 宣祖36年5月戊辰條
- ⑧ " " " 庚午條
- ⑨ " 卷210 " 40年4月甲午條
- ⑩ 光海君日記 卷27 庚戌閏3月丁卯條
- ⑪ 承政院日記 崇禎2年5月14日
- ⑫ 仁祖實錄 卷21 仁祖7年11月庚子條

### 2) 校書館文武樓

校書館 文武樓는 第三期서 부터 나타나 는 樓이다.

校書館에 附屬된 校書館에서 印刷한 圖書를 保藏하는 建物로서 宣祖6年(1573)2月20日에도 新皇華集 國用100件을 印刷한 中에서 20件을 文武樓에 保管하였는데 文武樓에는 많은 數의 圖書가 保管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나 아깝게도 宣祖25年(1592)4月30日 日本軍의 入城으로 文武樓所藏의 書籍이 全部 灰燼되고 마렸다.

- ① 宣祖實錄 卷7 宣祖6年2月辛未條
- ②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25年4月條

### 3) 弘文館

弘文館은 第二期로 부터 繼續되는 署官이다.

宣祖7年(1574)12月2日 弘文館으로 하여 금 綱目的 木板에 誤錯가 많아서 이를 校正토록 하였고 宣祖29年(1596)11月7日에는 歷代實錄을 妙香山으로 移置함의 如何를 무렸고 또 弘文館의 保管書籍中 韓國書籍은 備邊司에 무려서 江華에 謫置케 하였다. 宣祖33年(1600)2月3日 弘文館에 命하여 四書諺解, 孫子, 歷代兵要, 十九史略, 養蒙大訓, 訓蒙字會等の 圖書를 求하게 하였고 宣祖34年(1601)3月14日에는

古經周易을 繕寫하여 進上하였다. 宣祖34年(1601)8月7日 弘文館은 纂集한 春秋를 進上하였고 宣祖41年(1608)正月11日 柳希春이 著述한 新增類合 合本을 訂正하여 弘文館으로 하여금 開刊케 하였다. 宣祖36年(1603)6月7日 大雨가 있어 宮溝이 漲溢하여 弘文館의 書籍이 漂流散失한 것이 있어 中國에 가는 謝恩使로 하여금 널리 求해 오게 하고 거기에 論賞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蒐集하였던 圖書가 連이은 內亂으로 散失하였는데 仁祖7年(1629)6月16日에는 弘文館의 所藏圖書가 많이 散失되어 남은 것이 얼마 없어 卷帙을 채우기 爲하여 必要的 圖書를 中國에 가는 使臣들便에 사오도록 하였다.

- ① 宣祖實錄 卷8 宣祖7年12月 壬寅條
- ② " 卷82 " 29年11月 己亥條
- ③ " 卷122 " 33年2月 丁丑條
- ④ " 卷135 " 34年3月 壬子條
- ⑤ " 卷140 " 34年8月 壬申條
- ⑥ " 卷220 " 41年正月 己亥條
- ⑦ " 卷163 " 36年6月 壬辰條
- ⑧ 仁祖實錄 卷20 仁祖7年6月 己巳條

### 4) 成均館藏書閣

中宗實錄 卷21 中宗9年12月 庚寅, 辛卯, 壬辰, 丙申, 丁酉條에 보면 成均館에 尊經閣이 있었다고 하는데 仁祖12年(1634)7月1日에는 詔使가 四書詩經을 各 2部를 求함으로 成均館藏書閣으로 부터 이를 擇하여 보냈다고 있는데 成均館에 尊經閣外에 藏書閣이라는 記錄이 있는데 藏書閣과 尊經閣이 同一 建物인지 또는 別個의 建物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增補 文獻備考 卷208, 學校考7 雜考에 보면

「尊經閣在 明倫堂北 徐居正曰 成宗朝左議政 韓明滄獻議 清建焉閣既成并藏 內賜五經四書及 諸子百家 數萬卷 名曰 尊

經經者尊敬奉持之謂也」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尊經閣과 藏書閣은 다른 建物인 것 같다.

宣祖37年(1604)12月2日 壬辰亂後 書籍이 없어졌으므로 忠淸, 全羅, 慶尙의 各道에서 新刊한 書籍 詩傳, 四書, 家禮, 周易, 啓蒙, 十九史略, 三經, 心經等을 上送케 하여 成均館에 藏하게 하였다.

- ① 仁祖實錄 卷29 仁祖12年7月 乙酉條  
② 宣祖實錄 卷182 宣祖37年12月 丁未條

### 5) 文書庫

文書庫는 各官署에 個別的으로 있었던 것으로 宣祖21年(1588)6月6日에는 刑曹의 文書庫에 火災가 있었다는 記錄이 있다.

- ① 宣祖實錄 卷22 宣祖21年6月 戊午條

### 6) 書院

書院은 第三期로 부터 設立하기 始作한 私學機關이다.

宣祖6年(1573)11月28日 慶尙監司는 玄風의 金宏弼를 爲한 道峯書院, 慶州의 李彥迪를 爲한 玉山書院, 榮州의 李滉을 爲한 伊山書院에 賜額하고 書籍을 下頒하기를 請하였고 宣祖6年(1573)11月30日 星州에 있는 金宇頤를 爲한 州谷書院에 賜額과 頒書한 것을 請하여 이에 따랐는데 宣祖39年(1606)12月26日에는 州谷, 金烏, 雙溪, 藍溪의 四書院<sup>③</sup>에 賜額하였다. 光海君 8年(1616)11月10日 曹植의 書院에 白雲書院이라는 額을 賜하였다. 仁祖27年(1648)10月21日 趙光祖의 書院에 賜額하였다는 바 賜額은 王의 御筆로 된 扁額을 下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書院이 많이 設立됨에 따라 書院 目的하는 바와 달리 書院은 黨論의 策源地가 되어 감에

뜻있는 人士의 恨歎을 자아 했던 것으로서 仁祖22年(1644)8月4日에는 當時 慶尙監司였던 林堉馳가 書院創建의 由來와 그 後 書院이 주는 弊習을 啓하였다. 그래서 書院은 처음에는 學問靜修의 士를 祀祠하고 그것이 目的이었는데 차차로 그러하지 못한 士를 祀하고 있어 新設할 때에는 반듯이 中央에 報하여 朝廷에서 審議한 後 이를 許하게 되면 創設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① 宣祖實錄 卷7 宣祖6年11月 甲辰條  
② " " " 丙午條  
③ " 卷206 " 39年12月 庚申條  
④ 光海君日記 卷109 丙辰11月 丁丑條  
⑤ 孝宗實錄 卷2 孝宗即位年10月 丁未條  
⑥ 仁祖實錄 卷45 仁祖22年8月 己未條

### 7) 鄉校

鄉校의 起源은 高麗 仁宗5年(1127)에 諸州에 詔書를 내려 學校를 세우게 한 것에서 비롯하나 鄉校는 孔子를 祭祀하는 文宣王廟를 中心으로 하여 學을 講하는 明倫堂이 設置되었는데 李太祖는 府, 牧, 郡, 縣에는 各各 一校씩 鄉校를 設置케 하고 鄉校에는 반듯이 文廟, 明倫堂, 兩齋, 兩廡를 갖추고 儒生의 數는 府, 牧은 90人, 都護府는 70人, 群은 50人, 縣은 30人으로 定하여 朝廷으로 부더는 學田을 給與받았는데 書院의 勃興으로 鄉校가 衰微하게 되었다.

宣祖19年(1586)正月에는 鄉校提督官이란 官職을 두게 되었다.

- ① 宣祖修正實錄 卷20 宣祖19年 正月條

### 8) 校正廳

校正廳은 文學의 士를 몰아 四書三經의 音釋을 校正하고 이를 諺解케 하기 爲한

官署로서 宣祖18年(1585)正月에 經書訓解를 校正하기 爲하여 設署<sup>①</sup>하였다. 그리하여 宣祖21年(1588)10月29日으로 鑄字에 依存하였는데 先王이 改鑄를 命하여 甲寅字가 通行되었는데 不幸히도 兵火를 겪고는 舊字가 蕩失되어 全的으로 木刻을 使用하였는데 字體가 舛訛하고 쉽게 欠缺되어 印刷에 있어서 甚한 勞苦를 겪고 있다. 多幸히도 王이 經籍에 留心함으로 舊制에 復하여 鑄字都監을 두어 鑄字하였다고 있는바 새字體를 만든 것이 아니라 前에 使用하던 字體의 活字로 鑄字하였다는 四書三經의 音釋, 諺解가 끝났던 것이다.

① 宣祖修正實錄 卷19 宣祖18年 正月條

② 宣祖實錄 卷22 宣祖21年10月 己酉條

## 第二節 鑄字

發達하여 가던 活字印刷은 壬辰亂으로 큰 打擊을 받았다. 光海君10年(1618) 7月 22日 鑄字할것을 命하여 해를 넘겨 이때<sup>①</sup> 이룩되면서 鑄字都監이 啓하기를 다음과 같다. 則 平時의 書籍印出은 全的인 것이다.

① 光海君日記 卷130 戊午7月 戊申條

## 第三節 實錄

### 1) 春秋館

春秋館은 第一期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宣祖25(1592) 4月30日 日本軍의 入城으로 春秋館의 歷朝實錄은 校書館文武樓所藏의 書籍, 他庫所藏의 前朝 史草와 承政院日記等이 모다 灰燼되고 마렸다. 4史庫中 全州史庫의 實錄만이 兵火를 避하게 되었다. 宣祖39年(1606)4月28日에야 歷朝<sup>②</sup>

實錄의 重印이 畢하게 되었는데 새로 四部를 印刷하여 春秋館에 三部 香山太白山에는 草本을 두고 一部는 五台山에 各各分藏奉安하였다.

①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25年4月條

② 宣祖實錄 卷198 宣祖39年4月 丙寅條

### 2) 實錄

實錄은 四部를 作成한後 永久히 保存하기 爲하여 內外的 亂이 미치지 못할 深山靈地를 擇하여 史庫를 짓고 秘藏하였다. 春秋館의 史庫를 비롯하여 忠州, 星州, 全州에 史庫가 있었는데 壬辰亂으로 全州史庫의 實錄만 남고 三部는 없어 지고 마렸다. 全州史庫의 實錄은 全州 慶基殿參事인 吳希吉等이 實錄을 奉持하여 兵火를 避해 內藏山에 安置하여 이를 守直한 가담에 遺存하게 되었다. 宣祖26年(1593) 7月10日 春秋館은 全州史庫의 實錄을 春秋館으로 갖어올 것을 啓하였는데 宣祖26年(1593)7月29日 春秋館은 全州史庫의 實錄을 輸送하기가 困難하니 海州에 安置할것을 啓하여 이에 마렸다. 그러나 宣祖28年(1595)11月18日 實錄을 江華에 奉安한 後 史官을 遣하여 留守檢筋케 하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海州에서 江華로 移藏한 것을 알수 있다. 宣祖31年(1598)2月3日에는 前年9月 江華로 부터 平安道 寧邊妙香山 普賢寺別殿에 移安한 歷朝實錄은 單只一件만이므로 意外的 患을 念慮하여 速히 謄書하여 두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全州史庫의 實錄은 全州에서 海州로 海州에서 江華로 江華에서 寧邊妙香山으로 移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宣祖36年(1603)5月15日 南別宮에 局을 設置하여 歷朝實錄<sup>⑦</sup> 三件을 印出케 하였는데 活字는 校

書館의 乙亥字를 補刻하여 印刷하였는데 宣祖39年(1606) 4月28日 歷朝實錄 1500餘卷을 새로 4部 印刷 完了하였다. 그래서 實錄은 新舊合하여 5部가 되었다. 2部の 草本은 妙香山, 太白山에 新印3部는 春秋館에 一部는 五台山에 各各 分藏奉安하였다. 光海君6年(1614)에는 茂朱의 赤裳山城에 史庫를 創建하였다. 仁祖9年(1631) 11月1日 寧邊의 妙香山 所藏實錄을 赤裳山에 分置할 것을 請하여 仁祖11年(1633) 正月11日 妙香山의 實錄을 赤裳山史庫에 移置하였다. 仁祖18年(1604)4月 江華史庫의 實錄 兵燹에 逸한 것을 春秋 20名에게 命하여 改撰 闕遺를 補하게 하였다는바 江華史庫에 있는 實錄이 壬辰亂에 남은 全州史庫本임을 알 수 있다.

第四期는 宣祖로부터 仁祖까지를 劃하였으므로 第四期中에 이루어진 實錄은 宣祖의 先王인 明宗, 宣祖, 光海君의 三代 實錄이 이루어진 것이다.

明宗實錄은 宣祖元年(1568)9月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宣祖4年(1571)4月 34卷을 完成하여 宣祖4年(1571)4月17日에는 印刷를 끝내고 奉安使를 各史庫에 分遣하였다.

宣祖實錄은 光海君元年(1609)7월에 撰修를 始作하여 光海君8年(1616)11月 221卷의 撰修를 끝냈고 光海君9年(1617)8月 28日 印刷를 完了하였다.

宣祖實錄에는 修正實錄 42卷이 더 있는데 이는 仁祖19年(1641)2月12日 宣祖實錄의 改修를 議決하여 仁祖27年(1648)10月 17日 이의 改修를 畢하였다.

光海君日記는 仁祖2年(1624) 6月29日

撰修를 命하여 仁祖11年(1633)12月25日 187卷을 完成하였다.

- ① 朴奉石著 國史精解 9220
- ② 中樞院刊 朝鮮史 4編9卷 9529
- ③ 宣祖實錄 卷40 宣祖26年7月 壬戌條
- ④ " " " " 辛巳條
- ⑤ " 卷69 " 28年11月丙戌條
- ⑥ " 卷97 " 31年 2月戊午條
- ⑦ " 卷162 " 36年 5月庚午條
- ⑧ " 卷198 " 39年 4月丙寅條
- ⑨ 赤城志 卷3 古蹟
- ⑩ 仁祖實錄 卷25 仁祖9年11月庚午條
- ⑪ " 卷28 " 11年正月乙卯條
- ⑫ 國朝實錄 卷36·仁祖朝3 仁祖18年4月
- ⑬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凡例
- ⑭ " " " "
- ⑮ 宣祖實錄 卷5 宣祖4年4月辛酉條
- ⑯ 條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凡例
- ⑰ " " " "
- ⑱ 光海君日記 卷118 丁巳8月辛酉條
- ⑲ 仁祖實錄 卷42 仁祖19年2月丁巳條
- ⑳ 孝宗實錄 卷2 孝宗即位年 10月癸卯條
- ㉑ 仁祖實錄 卷6 仁祖2年6月辛亥條
- ㉒ " 卷28 仁祖11年12月癸未條

### 3) 史 庫

壬辰亂으로 因하여 忠州, 星州, 全州 外 三史庫가 灰燼되고 마렸다. 宣祖28年(1595)11月18日 實錄을 江華에 奉安한 後 史官을 遣하여 留守檢劄케 한것으로 江華에 새로히 設置된 것을 알 수 있고 宣祖38年(1605) 10月13日 五台山, 太白山을 史庫 造作의 地로 看審케 하여 宣祖39年(1606) 4月28日 重印한 歷朝實錄을 分藏奉安할때는 草本 二本을 妙香山, 太白山에 新印實錄을 五台山에 藏하였다.

- ① 宣祖實錄 卷69 宣祖28年11月丙戌條
- ② " 卷192 " 38年10月甲寅條
- ③ " 卷198 " 39年 4月丙寅條

#### 第四節 圖書撰修및 刊行

第四期에 있어서 刊行된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宣祖3年(1570)

國朝儒先錄을 印出 頒賜을 命  
五禮儀의 印頒을 命  
近思錄의 頒賜을 命

宣祖4年(1571)

儀禮經傳續集의 頒賜을 命  
禮記의 印出廣頒을 命  
朱子語類의 印頒을 命

宣祖5年(1572)

柳希春 六書附錄을 進

宣祖6年(1573)

朱子大全의 印出을 命  
李滉의 心經跋尾를 弁刻進上, 印出 命

新皇華集의 頒賜을 命  
學部通辨의 開刊을 命  
內訓의 加印을 命  
書法發明綱目的 印出을 命  
呂氏鄉約의 印進을 命  
李滉의 著書 印出을 命

宣祖7年(1574)

金貴榮, 柳希春에게 東國名臣言行錄의 撰을 命  
通鑑記事本末의 印出을 命  
南軒文集의 刊行을 命

宣祖8年(1575)

李珥 聖學輯要를 進

宣祖9年(1576)

柳希春에게 命하였던 四書五經國訣諺解의 詳定을 李珥에게 命  
柳希春 大學釋疏一卷 類合二卷의 印出을 命

宣祖10年(1577)

李珥 擊蒙要訣을 著述

宣祖11年(1578)

文山集의 刊行을 命  
文夢軒 家藏의 魏微十漸疏를 進

宣祖13年(1580)

全羅道에 柳希春의 著書, 川海錄, 續蒙求, 詩書釋義, 朱子語類訓釋, 綱目訓釋等の 上送을 命

宣祖16年(1583)

李彥迪의 著書 中庸九經衍義의 刻板 이북

宣祖17年(1584)

精忠錄의 印出을 命

宣祖18年(1855)

文天祥, 方孝孺, 鄭夢周의 文集刊布를 命

全羅監司 詞訟類聚를 刊板

宣祖24年(1591)

李山海 皇朝統記를 撰進

宣祖29年(1596)

小學의 印出을 命

宣祖34年(1601)

小學, 大學의 印出頒布를 命

宣祖36年(1603)

皇華集類編 이북

大學 600件的 頒賜을 命

江華守直史官에게 兵將國說, 易學啓蒙 初學字會, 陳法, 高麗史節要, 歷代兵要, 東國通鑑·東文選의 上送을 命  
李希迪 古文眞寶 7冊을 進

宣祖37年(1604)

金信之 孝經大義15件을 進

李忠元, 大東中興頌一篇을 進上

紀効新書, 鍊兵實記, 操鍊圖式奉譜等の 印出을 命

宣祖38年(1605)

- 文章宗範의 印出을 命  
宣祖39年(1606)
- 醫書의 印出을 命  
宣祖40年(1607)
- 武經七書의 印出을 命  
光海君元年(1609)
- 新增東國輿地勝覽 이록  
光海君2年(1610)
- 龍飛御天歌, 內訓, 書傳, 詩傳, 書傳,  
諺解, 詩傳諺解, 儒先錄等の 印出을 命  
東醫寶鑑 이록  
曹倬, 國朝寶鑑을 進上  
光海君4年(1612)
- 國朝寶鑑 印出을 命  
光海君9年(1617)
- 東國新讀三綱行實 이록  
仁祖3年(1625)
- 順天 松廣寺藏板 抗義新編의 增印을  
命  
仁祖7年(1629)
- 海東諸國記의 印出을 命  
小學200件의 印出頒賜를 命  
仁祖10年(1632)
- 餓禮經傳의 開刊頒布를 命  
仁祖13年(1635)
- 洪武正韻의 印出廣布를 命  
仁祖17年(1639)
- 救荒撮要를 頒賜  
仁祖22年(1644)
- 申翊聖의 皇極經世書, 東史補編을 進  
刊行을 命  
仁祖23年(1645)
- 趙賢 書筵備覽一卷을 撰進  
仁祖26年(1648)
- 新印 周禮80件을 頒賜  
燕閑要覽을 撰進  
趙翼 中庸大學註解를 進上

## 第五節 外國과의 關係

### 1) 明

第四期에서 부터는 淸國의 前身인 金나라 所謂 後金이 1616년에 생겨 1936년에는 淸國으로 建國하며 國勢를 擴大하여 明을 威脅하였으니 李朝의 外交에도 混線이 이르게 되었다. 明과 金과 淸을 合하여 來往된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宣祖元年(1568)6月29日

明의 使臣이 韓國先儒의 文集을 求하므로 下記圖書를 給하였다.

禹倬, 鄭夢周, 吉再, 權近,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金安國, 徐敬德等の 文集이다.

宣祖18年(1585)4月20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李友直이 大明會典謄寫一卷, 聞見小錄을 進하였다.

宣祖20年(1587)9月13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裴三益이 會典正藥內宗系草本一冊을 갖어 오다.

宣祖22年(1589)11月22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尹根壽 大明會典을 갖어 오다.

宣祖33年(1600)7月20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南以信 漢書評林五十本, 史記評林三十本을 購得하여 오다.

仁祖7年(1629)10月23日

金의 國王 請에 依하여 다음 圖書를 寄贈하다.

春秋, 周易, 禮記, 通鑑, 史略等이다.

仁祖17年(1639)10月11日

淸國으로부터 新曆 100部를 갖어오다

### 2) 日本

日本과의 關係는 壬辰亂이 있었다.

仁祖7年(1629)5月7日

倭使 經書의 通鑑, 牧隱集等の 圖書를 求하므로 이를 給하다.

仁祖10年(1632)12月11日

日本僧 玄方이 와서 名臣言行錄과 入學圖書를 求하였으나 不許하다.